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UN의 밀레니엄 발전 목표(MDGs)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에 관한 고찰

박성현 ^{*†}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A Stud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U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Park, Sung Hyun ^{*†}

*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Purpose: Eight goals i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emporary 12 goals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the UN projects are investigated in detail.

Methods: Investigation of statistics for life qualities, diseases, and life costs.

Results: By examining the shortcomings of MDGs, temporary goals of SDGs are suggested. In addition, four countermeasures are recommended for further considerat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MDGs with more interest and prepare the new age for SDGs by compensating the shortcomings of MDG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creative directions for SDGs which will be supposed to start in 2016.

Key Word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Quality of Life, Millennium Summit, Rio+ 20

● Received 12 August 2014, 1st revised 25 August 2014, 2nd revised 1 December 2014, accepted 2 December 2014

† Corresponding Author(parksh@snu.ac.kr)

© 2014,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 중에서 하루에 1.25불 이하로 사는 빈곤 인구는 세계 은행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 전체 인구의 43.1%이고, 2008년에는 22.4%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20% 가량인 13억 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들은 팬찮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의료, 교육, 위생시설 등의 혜택을 못보고 있다. UN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0년부터 밀레니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세우고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8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MDGs도 내년으로 종료되며, 인류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에 UN은 MDGs의 후속조치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논의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MDGs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MDGs의 부족한 면을 고찰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SDGs에 대하여 현재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사하여 고찰하고, 추가되었으면 좋을 내용들을 제안하기로 한다. MDGs에 관한 정보는 MDGs 공식 웹사이트(<http://www.un.org/millenniumgoals>)나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Millennium_Development_Goals)에서 찾을 수 있으며, SDGs에 관한 정보는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Sustainable_Development_Goals)

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의 보완책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대응적 관점이 아니라 선도적 관점에서 SDGs 추진에 관여할 수 있는 방향제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2. 밀레니엄 발전 목표

2.1 밀레니엄 발전 목표란 무엇인가?

밀레니엄 발전 목표(MDGs)란 2000년 9월 미국 뉴욕시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채택되었으며, 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구상으로, 2015년까지 달성하려는 8개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개 지표로 구성된 야심찬 발전 계획이다. 이 계획은 당시 UN에서 밀레니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이 있는 이후에 189개의 유엔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23개의 국제기구들이 이 계획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즉, 이 계획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유엔이 주도하여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잡은 광범위한 발전 계획이다.

2.2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탄생 배경

1998년에 UN의 주도하에 밀레니엄 포럼(Millennium Forum)이 조직되어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천여 개의 각종 조직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2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세계의 빈곤 퇴치, 환경 보호, 인권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를 UN 사무총장 Kofi Annan에게 보고되었으며, Annan 사무총장은 보고서 “우리 모든 사람들: 21세기 UN의 역할(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을 채택하였고,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정리하여 사무총장이 이를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밀레니엄 선언의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탄생되었다. 그러나 이 밀레니엄 선언에 오늘날의 MDGs가 모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발전목표(I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를 연구하여 발표하였으며, 세계은행에서 주관하여 개최된 2001년 회의에서 밀레니엄 선언의 내용과 IDGs를 합쳐 오늘날의 MDGs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3 밀레니엄 발전 목표와 상세 지표들

이 MDGs에서 2015년까지 달성하려는 8개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개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To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2015년까지 하루에 1.25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과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춘다.
- 여성, 남성과 젊은이들에게 팬찮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 2015년까지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

(2) 초등 교육 보편화 (To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의 초등학교 졸업을 보장한다.

(3)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2005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성 불균형을 최대한 없애고, 2015년까지 완전하게 없앤다.

(4) 아동 사망률 감소 (To reduce child mortality)

- 2015년까지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인다.

(5) 임신부 건강 개선 (To improve maternal health)

- 2015년까지 여성의 출산 도중 사망률을 현재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인다.
- 2015년까지 출산과 관련된 건강 지키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6)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 퇴치 (To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여기서 HIV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를 말하고, AIDS는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을 말한다.

- 2010년까지 모든 에이즈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2015년까지 에이즈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 2015년까지 말라리아 등 주된 질병의 발병을 예방한다.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To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각국의 정책에 지속가능 개발의 원칙을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자원의 손실을 줄이도록 권장한다.
- 2010년까지 생태계 다양성 손실을 줄여나가도록 한다.
-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 2020년까지 최소한 1억 명이 넘는 빈민촌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한다.

(8)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증진(To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국가 차원과 글로벌 차원에서 건전한 통치, 개발, 빈곤 감소 원칙에 부합하는 공개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확충한다.
- 최빈국들의 특별한 필요를 우선적으로 다룬다.
- 육지에 고립되어 있거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필요를 다룬다.

-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확대해 나간다.
- 의약 업체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들 내에서 필수 약품들을 적절한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을 제공한다.

2.4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위한 사후 조치와 전개

위의 각 목표(Goal)는 각각 세부적인 달성 지표(Target)와 달성 연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 투입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G8 개국은 2005년 6월에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에 400~550 억불의 자금을 제공하여, 극심한 채무빈곤국(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의 채무를 탕감하여 주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위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그들 나라의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었다.

2010년 MDGs와 관련된 UN 회의에서 MDGs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설정된 목표들의 성과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목표 달성을 독려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건강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고, 빈곤, 기아와 질병에 대하여 과감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이 MDGs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구로는 UN Millennium Campaign, Millennium Promise Alliance, Global Poverty Project, Micah Challenge, Youth in Action EU Programme 등이 있다. MDGs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8개의 목표 중 마지막 목표에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증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UN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목표 달성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개발도상국 간 MDGs 달성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2.5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성과

MDGs의 성과는 국가 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헌 Brazil(2012)에 의하면 브라질은 MDGs의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성공적인 국가로는 Chen and Ravallion(2012)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1990년과 2008년 사이에 4.52억 명에서 2.78억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Figure 1>은 MDGs (2014, Wikipedia)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로, 세계은행(World Bank)이 원자료의 제공자이다. 1981년에서 2008년 사이에 하루에 1불, 1.25불, 2불 이하(2005년 달러 가치 기준)로 사는 세계 인구 수(붉은 색)와 그 비율(푸른 색)을 나타내고 있다. 1.25불 이하로 사는 인구는 대략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 19억 명에서 13억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비율은 43.1%에서 22.4%로 감소하였다. MDGs의 첫 번째 목표인 1.25불 이하로 사는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는 2015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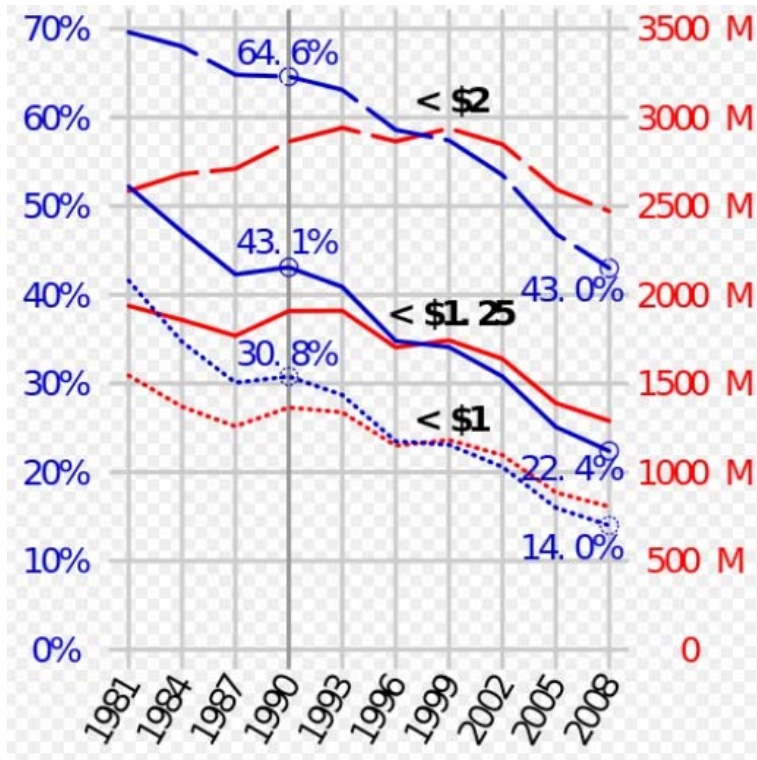


Figure 1. Population/ ratio making a living under \$1, \$1.25, and \$2

<Figure 2>는 5세 이하의 아동 사망률에 관한 자료이다. 아동 사망률을 2015년까지 2000년의 2/3으로 줄인다는 목표는 MDGs의 네 번째 목표로, 이 그림에 의하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 5세 이하의 사망률은 1,000명이 태어날 때 개발도상국에서는 100명에서 72명으로 줄어 들었다. 따라서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어느 정도일지 추정하기 어려우나 <Figure 2>에서 2015년 목표선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목표선을 달성하기는 통계적으로 추정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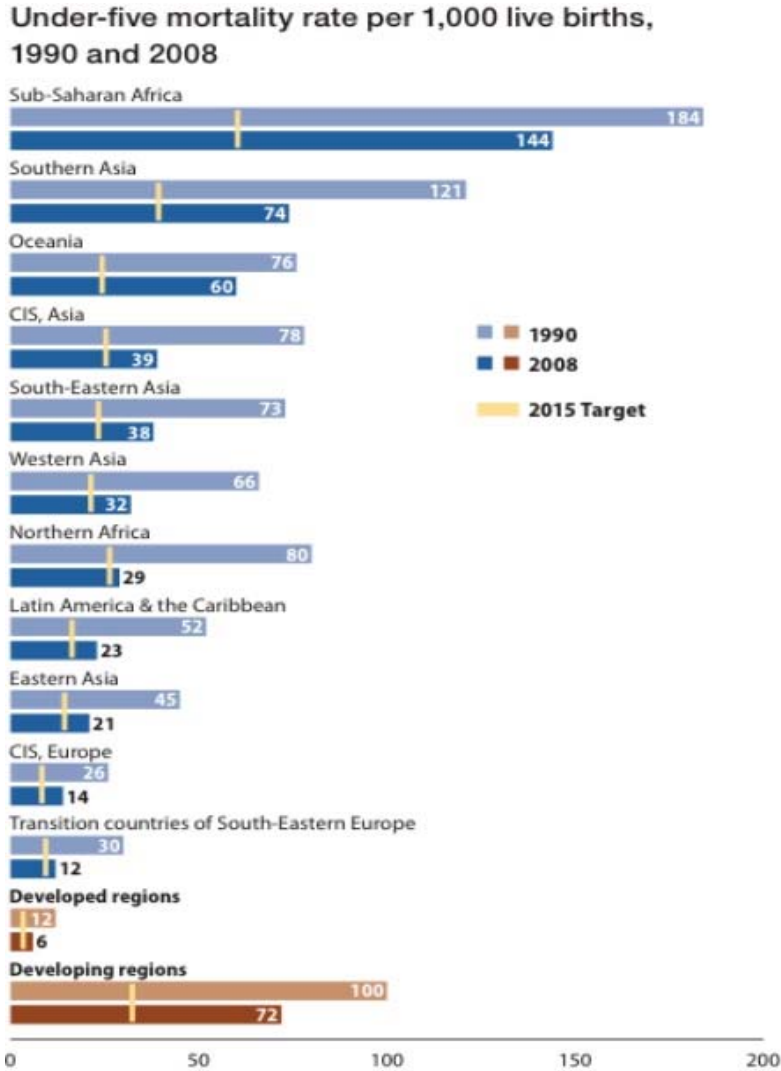


Figure 2. The number of children deaths under five years of age among 1,000 newborn babies between 1990 and 2008.

<Figure 3>은 MDGs의 여섯 번째 목표에 관한 성과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살고 있는 인구와 HIV에 새로이 감염된 인구, 그리고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로 죽은 인구를 보여주고 있다. HIV에 새로이 감염되는 인구는 199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HIV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인구도 증가세가 멈추고 있는 현상이다. AIDS로 죽는 인구도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까지 AIDS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MDGs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Number of people living with HIV, number of people newly infected with HIV and number of AIDS deaths worldwide, 1990-2008 (Mill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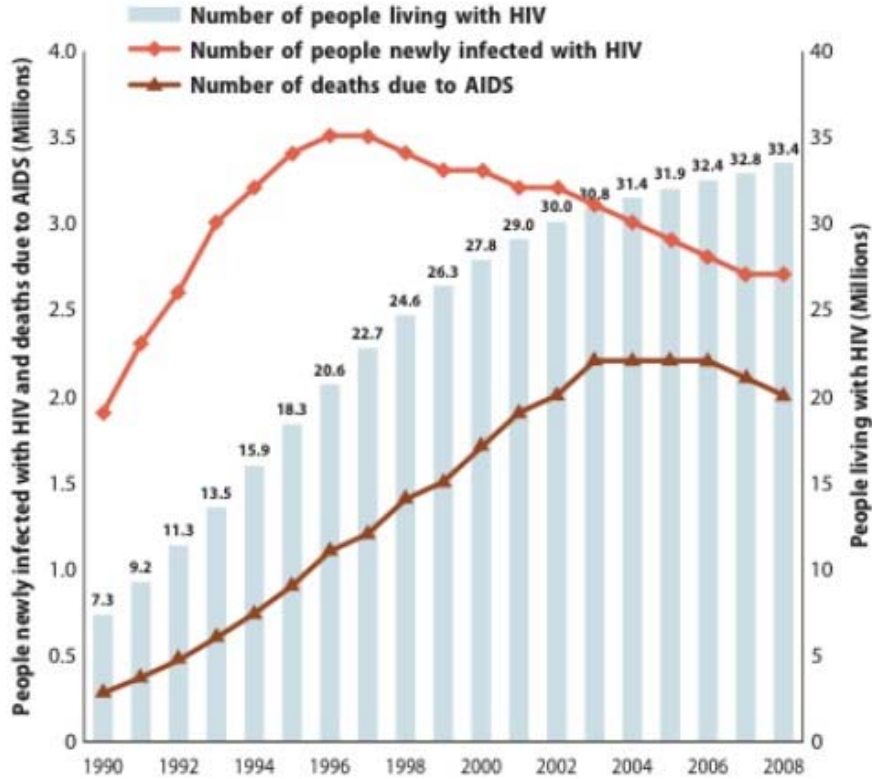


Figure 3. Statistics for HIV and AIDS patients.

2.6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문제점

UN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MDGs 활동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나, 목표의 타당성, 합법성 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비판의 주요 논문으로는 Naila Kabeer for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10), Waage, Jeff, et al (2010), Attaran, Amir (2005) 등이 있다. 이들의 비판은 주로 목표 설정의 타당성과 MDGs의 합법성에 관한 것이며, 인권 문제나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6.1 목표 설정의 타당성 여부

목표 설정을 위한 통계적 분석의 결핍과 목표의 타당성 여부이다. 또한 목표 달성에 관한 측정의 어려움과 국가 간 불균형적인 발전이다. 그리고 G8의 지원금이 개발도상국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어려운 과제이다.

2.6.2 MDGs의 합법성 결여

MDGs를 만들 때 주로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작성된 것이며,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참여하여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동의나 참여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MDGs의 합법성이 어느 정도 결여된 것이다. MDGs의 성공여부는 개발도상국들의 정치적인 의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 합법성 결여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6.3 인권 문제의 결여

MDGs에는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에 대하여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류의 인권(human rights) 신장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편적 인권 문제는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2.6.4 농업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의 지속 가능성

MDGs에는 식량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구상의 많은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농업 문제가 중요하다. 21세기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 기후변화가 주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지속가능 발전 목표

3.1 ODA에 의한 재정 지원

1970년 UN 총회에서 부유한 나라들은 그들의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를 ODA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2005년에 유럽연합은 ODA를 위한 0.7% 목표 달성을 재확인하였고(EU(2005)), UN에서도 2015년까지 0.7% 목표를 달성하도록 재촉하였다(UN(2007)). 한국은 오래전부터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증액시켜, 2010년에 ODA를 주관하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총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2012년 현재 0.14%(약 16억불)로, 세계 13위 경제규모인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스웨덴(1.02%), 노르웨이(1.00%), 룩셈부르크(0.99%)로 1-3위를 차지하였고, GNI가 큰 미국과 일본은 각각 0.2%, 0.18% 수준이며, 한국은 0.12%였다. 이 비율에 대한 DAC 국가 전체 평균은 0.32% 였다. 이 비율에 관한 UN의 2015년 평균 목표치는 0.7%이다. 한국은 2015년까지 0.2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ODA 원조는 MDGs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2 MDGs의 대체안 연구

2010년 9월 20-22일 사이에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MDGs의 달성 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UN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Review Summit 2010'이 열렸다. 이 회의에서 MDGs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고, 특히 여자와 아동 건강, 빈곤, 기근과 질병 등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2015년에 종료되는 MDGs를 대신하여 MDGs 이후의 발전안인 'Post-2015 Development Agenda'가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UN은 2015년 이후의 MDGs의 대체안으로 Post-MDGs 수립에 대한 일련의 논의를 3개의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 하였다. 이들은 UN 작업반(UN System Task Team),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가팀(Country Team), 그리고 UN 고위급 패널(HLP; The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이다. 첫째로, UN 작업반은 2012년 2월에 반기문 총장 주도로 구성되었으며, 이 작업반은 2012년 7월 보고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의 3대 핵심가치와 '포괄적 경제개발, 포괄적 사회개발, 평화와 안보, 환경 지속가능성'의 4대 핵심 축으로 구성된 'Post-2015 UN 발전 의제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로, UNDP 국가팀 활동으로, 8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언론, 대학 및 연구소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11개 주제별 논의 과정을 거쳤다. 세 번째로, 2012년 6월에 반기문 사무총장은 정부 및 비정부, 지역, 성별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계적으로 총 27명의 고위급 패널(HLP)을 구성하여 Post-MDGs를 연구하도록 의뢰하였다. 이 패널은 총 6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2013년 5월 30일에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통한 경제변환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한 UN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5대 대변환과제(big and transformative shifts), 12개 예시적 목표(illustrative goals), 그리고 54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HLP에는 우리나라의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이 포함되어 활약하였다.

3.3 Rio+20 회의와 SDGs 구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한다. 이 회의를 'Rio+20'라고 명명하는데, 여기서 +20의 의미는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Rio Summit; 이 회의를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라고 부르기도 함) 이후 20년 만에 유사한 회의가 리우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리우회의는 전 세계 185개국 정부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들이 참여하여 지구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한 회의였고, 그 정식명칭은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였다. 이 리우회의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리우 선언'과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고,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서명됨으로써, 지구환경 보존활동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성과를 낳았다.

Rio+20 회의에서는 MDGs가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그 후의 목표를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로 정하고, 192개국의 UN 회원국들이 차기 SDG의 근본 철학을 "행동 지향적이고, 소통이 쉬우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모든 회원국들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참여 가능하도록 목표를 설정(UN(2013a))" 하기로 하였다. 이 Rio+20 회의에서 채택된 문건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UN (2013b)))"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차기 SDGs에 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Rio+20 회의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가장 중요한 조치는 UN의 SDGs 열린작업반(OWG; Open Working Group) 활동이다. 이 작업반은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리우+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SDGs 열린작업반은 2014년 2월까지 주제별 협의 과정을 갖고, 이후 2014년 9월 UN 총회에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SDGs 열린작업반은 이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의 환경 중심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SDGs를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글로벌 의제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Post-2015 발전목표와 상당히 중복되어 향후 Post-2015 글로벌 목표와 SDGs는 단일화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2015년 9월에 UN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는 SDGs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고찰

4.1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의 초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개의 프로세스에 의하여 Post-MDGs에 관하여 논의되었고, 많은 제안들이 제출되었으나, 가장 눈에 띄는 결과를 도출한 것은 UN 고위급 패널(HLP)이 작성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통한 경제변환>이란 UN 보고서(HLP(2013))이다. 여기에 담긴 내용이 2016년부터 시작되는 Post-MDGs, 즉 SDGs의 골격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5대 대변환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 과제들이 SDGs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 (1) 모든 인류가 같이 동참한다. (Leave no one behind.)
- (2) 지속가능발전을 핵심가치로 생각한다.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 (3) 경제를 일자리 창출과 포괄적 성장으로 변환한다. (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 (4) 모두를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고, 효율적이며 열린 신뢰성 있는 기구들을 설치한다. (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for all.)
- (5)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다음으로,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12개 예시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 목표들이 8개 MDGs를 대체하는 목표가 될 것이다.

- (1) 빈곤 퇴치 (End poverty)
- (2) 여권 신장과 성평등 달성 (Empower girls and women and achieve gender equality)
- (3) 질 높은 교육과 평생학습 제공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 (4) 건강한 삶의 보장 (Ensure healthy lives)
- (5) 식량 안보와 양호한 영양의 보장 (Ensure food security and good nutrition)
- (6) 식수와 공중위생시설에의 접근 가능 (Achieve universal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 (7)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보 (Secure sustainable energy)
- (8) 직업, 지속가능한 생계수단과 공정한 성장 (Create jobs, sustainable livelihoods, and equitable growth)
- (9) 자연자원 자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Manage natural resource assets sustainably)
- (10) 양호한 지배구조와 효과적인 조직의 보장 (Ensure good governance and effective institutions)
- (11)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사회의 보장 (Ensure stable and peaceful societies)
- (12) 살기 좋은 글로벌 환경조성과 장기적 재정의 제공 (Create a global enabling environment and catalyse long-term finance)

이 목표들에 대한 계량적인 목표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2016년부터 시작되는 SDGs는 2030년까지 다음의 계량적인 목표는 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다.

- 12억 명 미만이 빈곤 인구이어야 한다.
- 5세 이하 아동 중 사망 가능성 높은 백만 명 이상을 살린다.
- 임신과 출생과정에서 사망하기 쉬운 4.4백만 이상의 여성을 살린다.
- 13억 톤 이상의 음식 낭비를 막는다.
- 4.7억 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고,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 2억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한다.
- 12억 명 이상이 전기를 제공받는다.
- 190~240 백만 헥타 이상의 산림이 녹화된다.
- 30조불 이상의 재정이 전 세계 정부들에 의하여 투명하게 사용된다.
- 자연재해에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수를 2.2억 명 이하로 줄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 제시는 아직 안 되고 있으며,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4.2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에 대한 발전적 제안

2000~2015년 사이에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UN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MDGs는 매우 야심찬 운동으로 빈곤 퇴치, 여권신장, HIV/AIDS의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MDGs에서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추가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16~2030년 사이에 실시될 SDGs는 아직 그 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MDGs를 이어 받아 인류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SDGs의 초안에 나와 있는 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지에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현재 SDGs 초안은 12개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다음의 세 가지 제안을 감안하여 목표의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목표에 같이 포함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4.2.1 과학기술의 진흥

MDGs와 SDGs 초안의 차이점은 SDGs에서는 MDGs에 없는 것으로, 공중위생시설의 접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공정한 경제 성장, 자연자원 자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이 추가된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과학기술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SDGs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MDGs와 SDGs 초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아동 사망률 감소, 임산부 건강 개선, 산림녹화 등도 모두 과학기술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진흥이 SDGs의 하나로 들어가기로 제안한다.

4.2.2 SDGs 달성을 위한 강제 방안 수립

MDGs에서는 어떤 개발도상국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징계하거나 강제할 방안이 없었다. SDGs에서는 UN 회원국 모두가 SDGs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강제적 방안이 확보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북한은 UN 회원국이나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 UN에서 북한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우선 권장하고, 아무런 노력이 없을 경우에 UN 차원에서 간섭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4.2.3 인권 향상

MDGs나 SDGs 초안에도 인권 향상(Improvement of human rights)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인류의 삶의 질을 확보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가 인권 존중을 받는 것이다.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인권 침해가 받는 것이 매우 흔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과 죄를 지었을 경우에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4.2.4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구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SDGs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든 나라가 구사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명 이상의 인류가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인류가 처한 최대의 과제이다. 품질 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들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UN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MDGs에 대하여 우리도 협조하여야 하며, MDGs가 종료되는 2015년의 MDGs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SDGs가 등장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UN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시작되는 SDGs를 의욕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SDGs에 보완하여야 할 점으로 4가지의 발전적 제안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며, UN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하여 SDGs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이 인류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ttaran, Amir. 2005. "An Immeasurable Crisis" A Criticism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Why They Cannot Be Measured." *PLOS Medicine* 2(10):318.
- Brazil. 2012. "Brazil: Quick Facts." Retrieved 2012-10-14, MDG Monitor. http://www.mdgmonitor.org/country_progress.cfm?c=BRA&cd.
- Chen, Shaohua, and Ravallion, Martin. 2012. "An Update to the World Bank's Estimates of Consumption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Retrieved 14 August 2012,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OVCALNET/Resources/Global_Poverty_Update.
- EU. 2005. External Relations Council, Brussels 24 May 2005. Retrieved 2012-10-18.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documents/EUExternalRelations24May.pdf>.
- HLP. 2013.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http://www.post2015hlp.org/the-report/>.
- MDGs. 2014. http://en.wikipedia.org/wiki/Millennium_Development_Goals.
- Naila Kabeer for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10. "Can the MDGs provide a pathway to social justice? : The challenge of intersecting inequalities."
- UN. 2007. UN Millennium Project Publications. Retrieved 2012-10-14.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reports/costs_benefits2.htm,
- UN. 2013. UN General Assembly Creates Key Group on Rio+20 Follow-up. Retrieved 26 February 2013, Press Release United Nations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39sdgspress.pdf>.
- UN. 2013. The Future We Want. Retrieved 26 February 2013, Outcome documen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uncsd2012.org/content/documents/727The%20Future%We%20Want%2019%20June%201230pm.pdf>.

Wang, Jeff. et al. 2010.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cross-sectoral analysis and principles for goal setting after 2015." *The Lancet* 376:991-1023.

